



부탄영화 '나그네와 마술사'

4월 28일 서울 필름포럼에서 개봉

2003년 토론토 영화제 경쟁작, 2003년 베니스 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 2004년 아시안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 시인 감독상 수상, 2004년 도빌 아시아 영화제 관객상 수상.

부탄에서 낯익은 영화 '나그네와 마술사'가 지닌 매력은 이렇게 각종 영화제에서 인정받았다. 환상과 자연,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나그네와 마술사'는 '킵'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스님 출신 키엔체 노르부 감독이 7년 만에 선보이는 액자형 로드무비다. 부탄판 '조선의 꿈'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이야기가 스님을 통해 소개되는 것이 이색적이다. 2002년 가을 제작된 '나그네와 마술사'는 키엔체 노르부 감독의 고향 부탄에서 처음 제작된 영화다. 이 영화를 위해 전 세계에서 모인 스태프와 배우는 108명. 오스트리아 독일 인도 캐나다 미국 등 다국적군으로 구성됐다.

영화제작과정도 한 편의 영화였다. 영화에 등장할 배우와 스태프는 옛 라마승이 고안했다는 전통 예언 방식 '모(Mo)'를 통해 결정됐다. 부탄의 전통문화를 고수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노르부 감독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부탄에서의 촬영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모든 장비를 해외에서 조달했고 필름 현상과 편집 등 후반 작업도 해외에서 이루어졌다. 영화 산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될 정도로 영화 제작 기반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은 부탄에서 키엔체 노르부 감독이 만들어낸 '나그네와 마술사'는 그 자체로 이미 마법이었다.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 가운데 전문 배우들도 없었다. 방송국 PD, 중학생, 부탄학교의 조사원 등이 캐스팅돼 어색한 듯 소박한 연기를 선보였다. 영화가 촬영될 무렵 다양한 지방 방언 가운데 국민의 1/4 이상이 사용하는 '중가'가 부탄 공식 언어로 채택돼 배우들이 새로운 언어구사를 하느라 고생하기도 했다.

영화를 제작하지 않을 때는 불교사상을 전 세계에 전파하며 각지에 수련센터와 수련학교를 세우는데 앞장서 온 노르부 감독은 "불교정신을 통해 해로운 것을 없애고자 '푸자스(pujas)'라고 알려진 특별한 종교의식을 영화 제작 전반에 걸쳐 했다"고 밝힌 만큼 불교와 영화를 교묘하게 접목시켜 왔다.

4월 28일 서울 필름포럼에서 개봉하는 '나그네와 마술사'를 살짝 훑쳐보자. 시골마을 공무원으로 하루하루 무료하게 살아가는 '돈덱'은 매일 미국으로 가는 방법만 생각한다. 그에게 아메리칸 드림은 지루한 일상을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다. 신나는 노래를 들으며 춤을 추는 것을 즐기는 돈덱에게 전통놀이를 하며 천천히 자연에 순응해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답답함의 극치이다.

스님 출신 키엔체 노르부 감독 작품 각종 영화제서 인정, 부탄 현지 촬영 액자형 로드무비... 환상적 영상미 "불교정신 통해 해로운것 없애고자"

길에서 시작 마무리 연기도리 잔잔하게



길 떠나는 나그네 '돈덱'(왼쪽)과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소남'. 사진 맨 위는 키엔체 노르부 감독.

매일 매일 애타는 기다림 끝에 낯익은 친구의 편지는 그에게 미국으로 갈 길을 알려준다. 당장 휴가를 내고 미국으로 가기 위해 대도시로 떠나는 돈덱. 이때부터 영화는 천연 그대로 남아있는 부탄의 자연을 아름답게 비추낸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한 대, 두 대 지나갈까 말까한 차들, 버스는 놓치고 히치하이킹은 실패하고 그렇게 떠나는 길에서 말없는 사과장수와 얘기보따리 스님과 함께 길을 가게 된다.

몸 달아 하는 돈덱을 위해 마술사 얘기보따리를

펼쳐 보이는 스님. 스님의 얘기를 들으며 이를 밤을 거리에서 머무는 동안 종이장사 부녀도 합류한다.

미국 가는 길이 험난하지만 한 돈덱. 스님의 얘기도, 종이장사의 착한 팔에게도, 마음이 흔들려 버린 그는 과연 미국에 갈 수 있을까?

길에서 시작해 길에서 마무리하는 영화 '나그네와 마술사'. 환상적인 이야기 구조 속에 어느 사이엔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와 연기에 빠진 '나'를 발견할 수 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news.com

사진동우회 심상 '님의 미소'展



영주 기흥동 마애삼존불상, 송길자 작.

올해 17주년을 맞는 사진동우회 심상(회장 원혜영)이 벼랑 끝에 새겨진 부처님의 미소를 '훑쳤다'. 높은 산, 깊은 골짜기, 구비진 들판을 헤매 다니며 심곡에 숨어 있는 부처님의 미소를 찾아온 시간들을 '님의 미소'라는 이름으로 도식한 북판에 풀어헤쳤다.

4월 22-27일 부천시정 로비 아트센터(032-320-2456)를 시작으로 5월 4-5일 석왕사 전시실(032-663-7771), 22-27일 서울 싸이드림 포토 갤러리(02-2266-5923)에서 펼쳐지는 열일곱 번째 작품전은 마애불을 주제로 했다. 원혜영 회장을 비롯해 원종기 김종욱 전종신 등 회원들과 고문 안장현씨, 영담 스님(석왕사 주지) 등 15명이 참여한 마애불의 미소를 만날 수 있다.

강지연 기자

보리, 방송모니터 요원 모집

(사보리는 지상파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생명생태주의 시각에서 본 방송'을 주제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부처님의 생명생태사상을 기초로 한 방송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방송행태에 경종을 울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송모니터링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4월 30일까지. 모니터링 교육은 △5월 2일-'생명 생태사상' '방송과 동물권' △3일-'환경 생태운동과 방송' '매체에 대한 이해와 방송환경변화' △9일-'생명생태주의 모니터링 실습' '모니터 보고서 쓰기' 등으로 이루어진다. (02)745-5811

강지연 기자

영천 만불사 산사음악회 개최



지난해 만불사에서 열린 달맞이 산사음악회에서 촛불 가리키는 참가자들.

영천 만불사(주지 학성)가 여섯 번째 산사음악회를 마련한다. 4월 29일 저녁 7시 만불사 대웅전에서 열리는 이번 산사음악회는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으로 영혼에 평안을 안겨주는 음악회로 마련된다.

산사와 명상음악의 만남으로 꾸며지는 이번 산사음악회는 시명 스님(울산극락사 주지·불교성악회 지도법사의 '크나큰 진리', 빙승 스님의 '푸른 학으로', 정을 스님(부르나 솔리스트 앙상블 단장)의 '향을 사워 몸을 태워', 지연 스님(선우사 주지)의 '대광명' 등 고운 선율을 들려준다. 가수 주병선씨는 '칠갑산'을, 소프라노 김현숙씨는 '부처 몸을 이루세'를 선보인다. 1600-0101

포교 프로그램 대폭 확대... 뉴스 강화

- 불교방송 5월 1일부터 봄 개편 -

불교방송(사장 이성언)이 5월 1일자로 2006년 봄 개편을 시행한다. 이번 봄 개편은 주요 청취 시간대에 포교 프로그램을 집중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주5일 근무에 맞춰 헬빙 선 산사체험 등을 프로그램 안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었다. 한 방향으로 들려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겠다는 포부다.

신설 프로그램은 '건강한 아침'(월-금 08:30) '함께 부르는 찬불가'(월-토 10:55) '가오스케치 양혜승입니다'(토·일 07:05) 등이다. '다시 듣고 싶은 노래' '마음으로 듣는 음악' '영화 음악실' 등은 시간을 늘렸다. '라디오법회'는 일요일에만 방송하던 것을 개편

후부터 토·일 양일에 걸쳐 집중 방송한다. '툼니 동산'(토 18:00) '음악의 마음'(월-일 14:05) '낭만 라디오'(월-일 16:10) 등은 시간대를 옮겼다.

전체 프로그램의 60% 정도를 포교 프로그램으로 마련했다.

교양제작국에서 제작해오던 아침저녁은 보도부에서 넘겨받아 뉴스를 대폭 강화했다. '양창욱 기자

의 외교가 산책' '윤용근 기자의 생활경제' '전경운 기자의 경제수첩' 등 기자들이 직접 출연해 해설 논평하는 코너들도 새로 도입했다.

정부 부처의 제작 참여도 이끌어 냈다. 소방방재청 상황실 심미자 소방장이 전해주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지영민 연구위원의 '열린 신문고' 등이 그것이다.

인사이드 뉴스를 신설해 취재 뒷얘기도 방송한다. 인사이드 뉴스는 인터넷에도 집중적으로 올려 다음 야후 등에 게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매일 10분 분량의 BBS TV 뉴스를 제작할 복안도 가지고 있다.

강지연 기자

禪 웰빙 산사체험 등 마련 해설 논평 기자들이 직접 '라디오법회' 토·일에 집중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등표 위치 높이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 합니다)

등·불·로·전·하·는·자·비·광·명 찬 덕 연 등

삼보에 귀의하십시오. 저희 찬덕연등과 임직원들 성심껏 키워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찬덕연등은 전통의 미와 현대의 감각을 잘 조화시켜 한국을 대표하며, 세계속에 우리 불교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소명을 갖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종등



팔각봉축점등 (제등행렬용 가능)



공단등



주름등 (만월봉축등)



전화: (031) 792-6288, 794-4055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찬덕연등

※ 연등, 카다로그 요청시 발송해 드립니다

사찰명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약 30일이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름등, 종등)

공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